“미얀마 민주항쟁 지원단체 결성해야”

광주 시민사회단체, 지원 조직결성·성명서 등 정신적·물질적 지원

실시간 미얀마 희생자 이야기 담아 배포…‘전국민 지지 호소’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미얀마 민주항쟁을 돕기 위해 지속·체계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하는 미얀마 민주 항쟁을 지지하기 위해 지속·체계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한미얀마인 광주 대표 묘네자(39)씨는 미얀마 민주항쟁 현지 상황에 대해 “군부가 시민을 체포하고, 고층 건물에서 시위대를 조준 사격하는 등 시위를 탄압하지만, 수많은 시민이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얀마 항쟁 지원 조직’을 결성해 미얀마 민주 항쟁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은 “민주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미얀마연대지지기구’를 조직해 민주화 투쟁 모금 활동을 벌이고 의료진·약품을 보내는 등 체계적·현실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발표 등 적극적 행동을 통해 미얀마 군부 세력을 압박하고 민주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광주인권평화재단 김민석 상임이사는 “지역의 여러 단체가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메세지를 담아 미얀마 군부 세력을 압박하고 미얀마 시민이 민주화 꿈을 이어가도록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재만 상임대표는 “광주가 민주화의 아픔을 겪은 만큼 지역 여러 단체가 성명서를 작성하고 미얀마 대사관 시위 등 적극적 지지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현지 희생자의 소식을 널리 알려 범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18연구소 박용수 전임연구원은 “미얀마의 현지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미얀마 민주화 지지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실시 현지 희생자 등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영상을 정리, 언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얀마 군·경이 반(反) 쿠데타 시위대를 무력 탄압하면서 현지에서 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김민정 기자

지하주점서 집단파티 벌인 외국인 적발…방역수칙 위반

출입국사무소 적발 후 해산 조치

지자체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광주에서 외국인들이 지하주점을 빌려 집단파티를 벌이다 적발됐다.

6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광산구 산정동 외국인 밀집지역 지하 주점에서 집단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을 적발해 해산 조치했다.

이날 주점에서는 몽골 국적 등 다수 외국인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사무소는 현장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무료 특별검진과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를 안내하고 해산 조치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계도활동은 최근 외국인 집단감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거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다시 만나줘’ 전 여친에 음란·협박 문자 공무원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성폭력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지난해 5월 1일까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5차례 보내고, 연락하지 않으면 특정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5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몸을 찍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들을 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병원비 벌려고” 편의점서 강도 행각 삼촌·조카 검거

새벽 시간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술을 훔치고 강도 행각을 벌인 삼촌과 조카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7일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A(53)씨와 조카(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0시25분께 함평 지역 내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든 채 침입, 와인 2병(2만 원 상당)을 빼앗은 뒤 여종업원을 끌고 나와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최근 투병 중인 가족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조카와 범행을 공모한 A씨는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 150m 가량을 끌고간 뒤 현금 100만 원과 신용카드를 차례로 요구했다.

그러나 여종업원 수중에 돈과 인출 가능한 신용카드이 없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조카를 시켜 차량을 준비케 했다.

여종업원은 A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함평경찰은 A씨 일행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추적, 광주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A씨와 조카는 1시간 남짓 만에 광주 광산구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일행이 흉기로 위협하며 편의점 내 진열된 와인 2병을 훔친 데 대해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종업원을 끌고 가 금품을 요구한 행위도 특수강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차량에 태우려는 시도가 없어 납치 미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국 돌며 4억 원 챙긴 보이스피싱 수금책 구속

2주간 전국 각지를 돌며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억 원을 가로챈 20대 수금책이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전남 장성군 한 주택 앞에서 40대 여성 B씨가 건넨 1500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1월20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두 달 간 광주·전남·전북·경남 등지에서 17차례에 걸쳐 총 4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수금액의 0.02%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인·구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낸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유혹에 넘어가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 TV를 분석, A씨가 기차·택시 등을 이용해 전국을 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 검거했다.

광양소방서, 교통사고 인명구조 소방관 2명 ‘소방청장상’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지난 2월 2일 덤프트럭 교통사고 인명구조 현장 활동 유공에 대해 예방안전과 직원(장지선 소방위, 김효성 소방사) 2명이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두 직원은 지난 2월 2일 출장 중 도로상 덤프트럭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한 후 침착하게 119신고와 동시에 운전자를 신속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펼쳐 안전하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예방안전과 직원(장 소방위와 김 소방사)은 “사고를 보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이었고, 평소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현장 경험들이 쌓여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현경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지킴이인 소방관으로서 지금의 헌신을 통해 소방에 대한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 명예로운 소방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선배 소방관으로서 조언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